

맛과 영양 담은 강진 '송키 바나나' 인기

친환경 인증 바나나로 소비자 선호도 높아

농협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매장 구입가능

맛과 영양 가득 담은 강진산 '송키 바나나'가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 먹기 편하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열대과일, 바나나는 과거엔 귀해서 부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바나나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또한 저렴해져 우리에게 친근한 열대과일로 자리 잡았다.

바나나는 우리 몸에 해로운 지방, 나트륨, 플라스테롤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반면,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 칼륨 및 비타민류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펙틴은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 및 혈관 확장을 도와 고혈압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강진산 '송키 바나나'는 친환경 인증 바나나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바나나는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후숙 과일 중 하나로, 긴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산패를 막기 위해 초록색일 때 수확해 익었을 때 시중에 나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부제나 보존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바나나 꼭지 부분 과육에는 재배할 때 뿌린 농약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

강진읍에 위치한 '지우네 스토리팜 (대표 김생수)'은 전남 최초의 친환경 (무농약) 바나나 농장으로 3,305㎡ 규



강진 송키 바나나 지우네 스토리팜 김생수 대표

모에 송키 바나나 600여 포기씩을 재배하고 있다.

이곳에서 기른 바나나는 농약 및 방부제 처리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높은 당도와 영양을 위해 나무에서 충분히 익은 바나나를 수확한다.

김생수 대표는 "건강한 바나나를 생

산하겠다는 신념으로 정성 들여 농사 짓고 있다. 매주 학교급식으로 140kg 정도를 납품하고 있으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농협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군,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총 84명 근로자 참여

강진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총 84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강진 곳곳 환경개선 작업이 진행됐다.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를 치우고 긴 장마기간 동안 자란 무성한 잡초를 제거했다. 이에 강진읍 상가와 강진읍시장 주변, 호수공원 및 생태공원 등을 한결 쾌적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중인 김 모 씨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에,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도 얻고 내 고장을 가꾸는 데에 일조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



지난 7일부터 총 84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강진 곳곳 환경개선 작업이 진행됐다.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를 치우고 긴 장마기간 동안 자란 무성한 잡초를 제거했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귀성객과 지역 주민 모두 청정 강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어려운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비대면 시대, 진도군 SNS 온라인 홍보 활발

여행지·역사적 장소·특산품·맛집 등 여행 코스 소개



진도군이 언택트(untact)시대를 맞아 온라인 홍보에 관심을 두고

SNS 구독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어서오게 날좀보개'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 진도군의 여행지와 역사적 장소 그리고 특산품, 맛집 등 여행 코스를 매주 1-2개 영상을 제작해 구석구석 소개하고 있다.

영상물은 진도군 공무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촬영·출연·편집 등 모든 과정을 외부 업체가 아닌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방영된 주제는 인구 늘리기, 진도 아리랑물, 낚시·등산·도요민속여행과 함께 대파·꽃게·김 등 제철 특산품을 활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요리 등을 알기 쉽게 제작, 온라인 상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콘텐츠 고민을 하는 공무원의 고심과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브이로그(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 형태로 공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한 홈쇼핑 콘텐츠인 '보배섬 진도 찐소핑'은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직접 울금, 표고버섯, 전복 등을 판매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되어 많은 판매고를 달성했다.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스토리 등 SNS를 기반으로 한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탄탄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향우회 '귀성·역귀성 자제 공동 호소문' 발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추진하는 추석 명절 귀성·역귀성 자제를 요청하는 완도군의 '이동 멈춤' 운동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 향우들의 애환심이 빛을 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동 멈춤' 운동은 무엇보다 군민과 향우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이에 완도군 6개 향우회(재경, 재광, 주, 재인천, 재안산, 재제주, 재포목)에서는 지난 4일 추석 명절 '귀성 및 역귀성 자제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회원 커뮤니티와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를 통해 전국 30만 향우들의 공감

대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타 지자체 향우들에게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향우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추석 명절 귀성과 역귀성 자제로 위축된 고향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각 향우회 별로 호소문을 발표하여 '추석 명절 선물은 완도 특산물로 감

사 마음 전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직접 구매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실질적인 구매 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이는 향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완도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완도군 30만 향우들은 호소문을 통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코로나19 확산 예방 캠페인

시장 상인 마스크 500매·마스크 끈 200개 배부

장흥군은 17일 정남진장흥토요시장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지역민의 방문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시장 내 방역 강화 조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종순 군수를 비롯한 참가자 20여명은 시장을 돌며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전달했다.

시장 상인들에게는 마스크 500매, 마스크 끈 200개를 나누어 주면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정종순 군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문객과 시장상인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